

## 『考試界』! 법학발전의 전설이자 신화!

우리나라 법학과 법조의 발전을 견인하며 인고의 세월을 곳곳이 이어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考試界』의 창간 61돌을 맞아 진심의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이렇게 한 우물을 파면서 일로매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우며, 이 땅의 법학교육 발전과 법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에 경의를 표한다.

『考試界』는 한국법학의 상징적 존재이며, 법학도와 법률가에게는 자존심이자 명예 그 자체이다. 1956년 6월 창립된 이래 꾸준히 법학현장을 지켜오며 법률가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희망의 등대이자, 절망과 좌절을 치유하며 재기를 북돋아 준 산신이다.

필자는 1973년 3월 대학생이 되어 문중의 어른인 당시 민법학자 정법석 교수님을 찾아보였을 때, 제 손에 쥐어 준 첫 선물이 근간된 『考試界』 3권이였다. 이후 수시로 그분의 연구실을 찾아가서 당연한듯 『考試界』를 갖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도 무릎위에 올려 놓고 품을 잡았고, 또 교정에 와서는 그 내용에 익숙치 못하면서도 학우들끼리 돌아가며 읽고 토론하면서 법학의 맛(?)을 익혀 가던 기억이 생생하다. 연대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무렵에 존속살인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견해가 다른 두 교수님(한상범 교수님과 박동희 교수님)이 『考試界』에서 매 월 번갈아가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글을 읽으며 우리끼리 편을 갈라서 논쟁 아닌 논쟁을 흥내내며 법학도로서의 기질을 키웠던 기억이 44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考試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법학교육현장을 지키며 수험법학은 물론이고 입법의 경향과 관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학리적인 면 외에도, 법학도의 영원한 로망!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한 '합격기'는 언제나 찼던 드라마 그 자체였다. 그야말로 법학도에게는 명쾌한 법이론의 정리와 사례해결방법을 제공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영원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언 60여 성상을 쉬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 왔으니 그러한 집념 어린 헌신의 과정이 곧 우리 법학의 역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더욱 고마운 마음이 넘친다.

근래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과다한 통제와 규제로 인하여 그 도입취지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현대판 읍서제라는 비아냥과 새로운 법조기득권을 만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많은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타율에 의한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에 의한 다양화·특성화·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화 되고 있는 현상은 로스쿨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변호사 수를 놓고 법학계와 법조계간의 로스쿨 존립에 관한 논쟁은 본질을 벗어난 갈등이다.

## 정 용 상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대표



또한 로스쿨 도입이후, 중등교과과정에서 '법과사회'과목이 폐지되어 청소년이 법대나 로스쿨을 가지 않는 한 법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치시민으로 편입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학에서는 로스쿨 도입이후 학부 법학전공과정(법과대학, 법학과)을 구조조정의 먹잇감으로 삼으므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인구가 급감하였고, 법학연구의 장에서는 기초법학·순수법학·이론법학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존재가 사라졌고, 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 또한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앞친데 뒷친격으로 각종 국가시험과목에서 법과목이 대부분 배제됨으로 인해 법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를 맡는 반법치·몰법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공무원(5급기준) 중 법학전공자가 3%대에 머문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현재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분위기가 팽배한 때에,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제대로 된 개혁이 있어야 만이 옳은 민주주의, 반듯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단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압축성장의 기적을 달성한 근거가 되는 한국법을 개도국·신흥공업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考試界』가 한국법학의 압축성장의 기적을 가져온 주인공이라면, 위와 같은 한국법학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향도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考試界』가 법학과 법조의 사회적 저평가의 흐름을 막고, 지난 61년간 어려운 고비마다 법학을 세워 온 인도자로서의 경험치를 되새기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대전환점에서, 법학도·예비법조인·법률실무자·법학자·법치시민 모두가 소통하며 선진법치주의를 노래하는 통합의 장으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考試界』를 통하여 법률계의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을 접고, 소통과 통섭, 통합과 통일의 길을 열며, 『考試界』가 제대로 된 로스쿨, 반듯한 법과대학, 그리고 국민의 사랑받는 법조가 되도록 여두운 길을 밝히는 이름으로 우람하길 기대한다. 장강 당시의 적박한 법교육현장을 근대화·개방화시키는데 파이오니아 역할을 다한 『考試界』가, 앞으로 더 더욱 더 법학을 현대화·세계화시키는 친근한 법학의 지킴이, 법치주의의 받침이, 법치시민사회의 섬김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며 법학계도 그 숭고한 뜻에 부응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